

코카콜라, 브롬산염 함유 생수 망신

유해물질 발견돼 자발적 리콜 실시 ... 오존가스 소독 처리과정에 문제

전 세계적인 음료 생산기업 코카콜라가 “과학이 만든 최고로 순수한 물”이라며 기세 좋게 영국 시장에서 출시한 수돗물 정수 생수 <다사니>에 유해물질이 함유된 사실이 밝혀져 리콜을 실시하는 수모를 당했다.

코카콜라는 잠재적 유해물질인 브롬산염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밝혀져 영국 시장에 공급된 50만병의 다사니를 전량 리콜한다고 밝혔다.

영국 식품기준청(FSA)은 “브롬산염은 당장 건강에 위협을 주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암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며 “리콜 조치는 분별 있는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코카콜라는 리콜이 예방 차원에서 이뤄진 자발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영국에 수돗물 정수 생수 시장을 열려던 코카콜라 측의 시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영국 언론들은 수돗물을 정수한 뒤 생수병에 담아 파는 코카콜라의 상술을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비판해 왔다.

이에 대해 코카콜라는 “다사니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우주선에서 사용하는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 등을 거친 후 맛을 내기 위해 칼슘, 마그네슘 등을 첨가한 최고로 순수한 물이며, 중요한 것은 물의 출처가 아니라 물의 질”이라고 반박해 왔다.

코카콜라는 리콜 결정과 관련해 “수돗물을 소독하는 과정에서 주입한 오존가스가 물 속에 브롬산염을 생성시켜 뜻하지 않게 브롬산염 함유량이 높아졌으며, 정수 및 소독 과정을 개선해 브롬산염 함유량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오존 처리는 물 속에 주입된 오존 가스가 물 속에 들어있는 미생물을 죽인 뒤 증발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수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소독 방법 중 하나이다.

<화학저널 2004/03/23>